

# 크록스를 탄생시킨 불더에서 배우는 창업도시의 힘

의정단상

강수훈  
광주시의원



신발이긴 한데 구멍이 송송 나있고, 슬리퍼처럼 보이는데 따로 돈을 들여 구멍 위에 저마다의 특색있는 단추와 장식품을 달고 다니는 악어처럼 못생긴 신발이 있다. 유명 할리웃 스타들부터 전 세계 유명인이 신고 다닌다는 크록스 신발이다. 이 신발은 예쁘지 않은 디자인 때문에 합부로 신을 수 있고, 물과 육지 어디든 다니기 생활이 가능하고 편하다는 강점을 살려 창업 5년만에 이탈리아·중국·루마니아에 있는 공장들을 연달아 인수하면서 초고속 성장을 이어갔다. 신발업체로는 최고가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기도 했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 법한 이야기다.

그런데 크록스가 어디에서 탄생했는지 그 도시의 이름을 들으면 다소 생경하다.

크록스는 라스베이거스에서 4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콜로라도 주 불더라는 도시의 고향친구 3명이 서핑을 즐기다가 보트 슈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창업하게 되었다. 불더는 역사적으로 로키산맥의 금맥이나 찾던 광업도시였고, 기껏해야 인구 10만여명의 작은 도시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처럼 작은 도시에서 큰 기업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불더의 창업 환경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불더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연구시설을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벤처캐피탈리스트와 기업가들이 중심이 되는 스타트업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대표적으로 창업자들이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베푼다(We Give First)'라는 지역 커뮤니티 문화를 들 수 있다. 주식이든, 수익이든, 생산품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 좋으니 창업자를 비롯한 모든 비즈니스 주체가 상상이나 회수에 성공할 경우 1% 지분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거나 시간을 할애하겠다는 플레지 1% 콜로라도(Pledge 1% Colorade) 캠페인은 불더 지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문화 자원이 되었다. 결국 불더의 창업자들은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로 돕고 배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꾸준히 구축하게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서로의 강점을 토대로 협력하여 창업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여기에 더해 불더는 원래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이었지만, 이후에 도심 행정가들이 나서서 나무를 심고, 정원을 만드는 등 도시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매력적인 자연경관 주변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 창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이제 불더는 1인당 국내총생산 GDP가 7만 달러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인구수 대비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분야의 인재와 일자리 비율을 종합한 각종 지수에서 가장 창업하기 좋고, 창업성공률이 높은 혁신 도시라는 명예를 갖게 되었다.

크록스의 성공 과정에서 불더의 창업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작은 도시에서도 창업과 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고, 광주에서도 얼마든지 세계를 대표하는 큰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양말 제조업체인 무등양말이 발달하고 유연한 사고와 결합되고, 온라인 마케터들과 협업하여 세계의 양말문화를 선도하는 회사가 되는 날도 한번 상상해보자. 광주가 맛의 고장인만큼 스타벅스와 맥도날드처럼 세계를 음식으로 연결하는 대형 프랜차이즈도 광주에서 등장할 수 있다.

작년 말 기준, 광주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의 전국화 현황을 보면 도야짬뽕 160개, 잇샌드 40개, 김형제 고기의 철학 90개, 별크커피 214개, 풍남옥 25개, 피자가가막혀 90개, 서울깍두기 30개, 타르타르 50개, 솔밭솔밭 68개, 첨단돌출감자탕 41개가 있고, 족발로맨스가 태국에, 대창식품이 네팔에 진출해있다. 광주 프랜차이즈 총만치킨은 미국 20개점, 베트남 2개점, 태국 5개점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큰 기업을 유치하려 다니는 영업도시 광주에서 벗어나,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시켜 작지만 강한 기업에 주목하고 세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광주가 잘하는 분야를 찾아서 전력주주하고,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방향만 잘 잡으면 세계 속의 창업도시 광주를 주목할 날도 머지 않았다.

## 社說

### 전남 신재생에너지 '자산지소' 실현돼야

에너지 3법 등 국회 통과 눈앞

전남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독보적이다. 2023년 기준 전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약 6GW로 전국 설비용량의 20%를 차지하며, 태양광과 풍력 분야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발전 수익 일부를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햇빛·바람 연금'은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전남의 미래 풍부한 자연 자원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정책의 결실이다.

미래 전남을 바꿔놓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대전환 기회도 찾아오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지원을 토대로 첨단 전략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남도는 즉각 환영했

다. 에너지 3법 중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전남도가 주도한 법안이다.

해상풍력특별법으로 지역주도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2035년 30GW 해상풍력 단지 조성 목표 달성이 기대된다. 전력망 확충법안은 전력망 조기 구축을 위한 35개의 인허가 의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60일 이내 주민의견 수렴, 주민특별보상 등이 가능해져 송전망 건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내친 김에 에너지 기본소득이 담긴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된다면, '재생에너지 4법' 완성이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소멸위기에 빠진 전남의 미래는 눈부시게 빛날 것이다. 무엇보다 전남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가 전부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부당한 현실이 바로 잡혀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투자를 이끌어 기업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지방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자산지소'가 하루빨리 실현되길 바란다.

### 100세 시대 혁신 될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전대병원 통합구축사업 선정

전남대병원이 2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국가 통합 빅데이터 구축은 거대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질병 예방과 진단·치료법 개발 등 바이오 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국가 주도 연구개발 사업이다. 광주·전남이 제조업을 넘어 바이오 데이터 파워의 산실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이번 선정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중증질환자 1만2284명과 일반 시민참여 1만9789명을 모집해 임상정보와 검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업 지원비로는 2028년까지 5년간 35억원을 받는다. 혈액·소변·조직 등 검체와 임상 정보, 의무 기록,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개인 생성 건강정보, 유전체 등의 정보를 수집해 바이오 빅데이터가 구축되면 질병 예방이나 진단·치료법 개발 등 바이오 산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데이터가 집적되면 인공지능(AI)과 바이오, 헬스케어 등 미래 핵심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

스케어 등 미래 핵심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료에서도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잠재력도 높다. 전세계 모든 국가가 직면한 인구 변화는 빅데이터와 의료·바이오를 결합시킨 기술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집적된 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해 조기에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 효과를 높일 경우 사회적 비용도 절감된다. 환자나 일반인의 임상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도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의 핵심 산업을 육성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빅데이터와 의료·바이오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성장동력이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규모나 축적보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윤리를 지키는 것은 모두에 필요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더 큰 부가가치로 이어가는 것이다.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은 100세 시대, 바이오 헬스를 위한 또 하나의 혁신이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19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제멜리 병원 앞에 있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동상 밑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을 기원하는 촛불이 놓여 있다. 폐렴으로 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상태가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나아졌다고 교황청이 밝혔다.

뉴시스

#### 서석대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 밭위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고려시대 불렀다고 전해지는 '청산별곡'은 고려말, 수백년 이어진 혼란한 정국에 집을 떠나 떠돌던 유랑민의 절망과 꿈을 읊은 노래다. 거란과 몽고의 외침에 이어 기득권의 내란과 무신정권까지 수차례 내우외환을 겪어야 했던 백성들. 그들에게 마지막 꿈은 청산에 들어가 유유자적하며 사는 것이었다. 이상향으로 생각했던 '청산'도 단순한 자연을 넘어 희망이었고 머루와 다래는 세속을 떠난 사람들이 먹는 선식(仙食)의 상징이었다.

다래는 우리나라 산과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종 식물이다.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소박한 모습으로 옛 문헌에도 자주 등장한다. 조선 중기 문인 장유는 "녕콜 올라간 지 몇 년도 안되어/푸른 다래 주렁주렁 달렸나/혀끝에 차고도 달콤한 맛/신선에게 반도 구할 필요 있으리오."라는 시를 남겼다. 반도는 3000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다는 선도(仙桃)다. 조선시대 문관 김상헌도 다래가 익어가는 가을을 두고 "들판엔 기장과 조 열리고/산속엔 다래와 포도 영글었네/이 좋은 때에 술 없으면/서늘한 가을 정 어떻게 있으리."라고 했다. 가을 산의 풍요로운 정취가 눈 앞에 선하다.

지난 1975년 문화공보부가 창덕궁 동편에 자생하는 다

래나무 한 그루를 천연기념물 251호로 지정했다. 당시까지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수령 600년으로 추정되는 노거수였다. '수령이나 수령이 문화재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게 이유였다. 머루나 정금, 까치밥, 맹감(청미래덩굴 열매)처럼 누가 가꾸지 않아도 야산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고, 주전부리 균음식으로만 여겼던 하찮은(?) 나무로서는 파격이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산속 귀퉁이에 서 묵묵히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토종 나무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심어졌다.

#### 다래의 귀환

전남도 산림연구원이 최근 토종 다래의 신품종 육성과 다래 산업화에 나섰다. '전남의 기후 조건에 적합한 신품종을 육성하고 새로운 고부가 소득 품목으로 다래 시장을 넓히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다래는 당도가 높고 어린 새순의 사포닌 함량이 높아 건강식으로 최고라고 한다. 이른 봄 채취한 수액은 기능성이 뛰어나 고로쇠를 능가한다. 5월에 피는 화려한 흰 꽃도 꿀이 풍부해 밀원식물로 제격이다. 가을이면 아이들은 산에 올라 주렁주렁 열린 다래를 따먹고 소를 먹고 꿀을 베며 하루를 보냈다. 산 마을 아이들의 소중한 추억을 되살려 주는 다래. 먹을게 부족하던 시절 소중한 먹거리였던 '다래의 귀환'이 반갑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